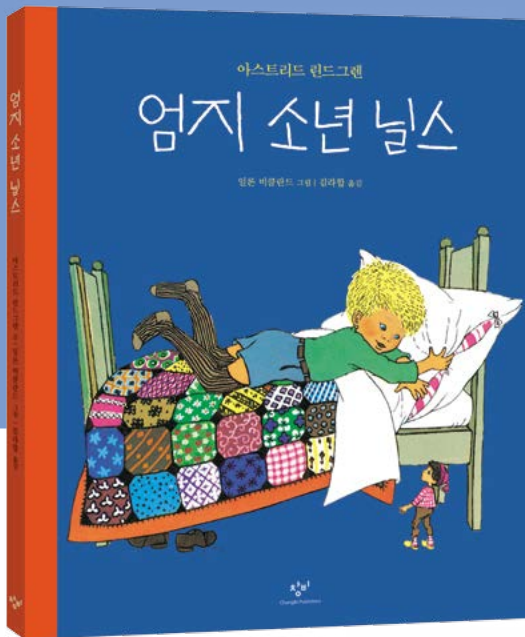


활동지 구성 김리연 김포 장기초등학교 교사

## 내 주머니 속 작고 따스한 친구, 엄지 소년 닐스 따뜻한 상상력으로 펴낸 비밀의 세계



### 엄지 소년 닐스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글 · 일론 비클란드 그림 · 김라함 옮김 | 창비 2022

하루 종일 빈집에 홀로 남겨진 '베르틸'은 부모의 보살핌과 또래의 관심이 부족한 외로운 아이였지만, 마음에 꼭 맞는 상상 친구 '닐스'를 만나고 단단하게 성장해 간다. 베르틸은 닐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외로움을 달랜다. 책을 읽을수록 어느새 베르틸의 얼굴에는 슬픔이 사라지고 또래 같은 생기발랄한 명랑함이 비친다. 베르틸이 상상 친구를 만들어 혼자인 시간을 견디는 모습을 통해 어린이에게 상상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 수 있다. 울적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베르틸이 따스한 닐스를 만나고 성장해 가듯 이 책을 읽는 어린이도 마법 같은 상상 세계를 만나 한 발짝 나아가기를 바란다.



# 줄거리 예상하기

읽기 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침대 밑에 작은 소년이 보여요.  
이 소년에 대해 마음껏 상상하며 빈칸을 채워 봅시다.

나는 아주 작아서

.....에 살아.

나는 특히

.....을 좋아해.

엄지만 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바로 .....이야.



내가 상상한 이야기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며 읽어 봅시다.



# 주인공 알아 가기

상상

읽는 중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베르틸과 닐스가 함께 놀던 모습을 떠올리며  
여러분이 닐스만큼 작아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든지 그려 봅시다.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orange border, intended for drawing or writing.

여러분이 베르틸이라면 닐스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닐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 보세요.

A large light blue speech bubble shape, intended for writing a message to Nils.





## 나만의 작은 세계 만들기

읽은 후 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닐스를 따라 “꼬꼬마 휘리릭!” 주문을 외치면 베르틸은 꼭 엄지 소년처럼 작아져요.  
머리가 타 버린 성냥은 땀감이 되고, 망가진 칫솔 머리는 청소용 솔이 되지요.  
여러분만의 작은 세계를 만들어 꾸며 봅시다.

